

교회소식 및 광고

1. 나오신 분들을 주의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22 주일은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추수감사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3. 오늘 오후5시 이창연 전도사 가정에서 목장예배로 모입니다.
(주소: 46 Township Line Rd #228 Elkins Park PA 19027)
 4. 성경통독(46주)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교우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5. 중보기도: 천춘미 집사님 온전한 회복 위해 기도바랍니다.
 6. Community Thanksgiving Dinner 21일, 오후 5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 ** 성가대/한글학교 문의--반주자: 박해경(240)641-3509 **
** 교회학교 문의--교육 담당 전도사: 이창연(240)271-5815 **

향기로운 예물

지난 주일 헌금 봉헌 (\$1,547.00)

십 일 조: 김광일 천춘미, 송희복 송순란, 심선섭, 이창연 박해경,
유혜영, 조우영,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감사헌금: 천춘미(헌금하도록), 손정옥 박순주, 송정례,
유기승,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주일헌금: 고향숙, 박병기, 손정옥 박순주, 송규민, 심선섭, 이관호,
조병우 조은미, 조병기, 무 명.

선교헌금: 김광일 천춘미, 심선섭.

주 기도제목

1.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2. 2세들을 위한 영어예배, 한글학교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3.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 충만함 받아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4. 천춘미 집사, 손명원 집사, 송희복 집사님의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5. 새롭게 시작하는 한글학교와 은혜로운 한 해의 결산을 위해서.

제7권 46호 | 2015년 11월 15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어린이 예배	오전 11:15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예배	저녁 8:00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낮 예배

-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다 같 이
- 합심기도 Prayer 다 같 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유금자 권사
-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같 이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목사
- 찬 양 Anthem 성 가 대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다니엘서 12장1~4절 다 같 이
- 설 교 Sermon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 조병우 목사
- 폐회찬송 Closing Hymn270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 다 같 이
-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348장 (4절) 다 같 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병우 목사
- ♣ 표에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 즐겁게 식사하시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요 예배

수요 저녁 8:00

새벽기도회

새벽기도 6:00 (월-토)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담당	안내위원
이번주	권사	우영자 권사	사랑속	조민연 송정예
다음주	우영자 권사	유해영 권사	다함께	



<추수 감사절을 맞으며>

다음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청교도들의 신앙 유산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위해 영국 청교도들이 조국을 처음 떠났던 시기는 1620년 8월 15일이었고, 출발지는 사우스 샘프턴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이 홀라워 호와 같이 떠났던 스피드웰 호가 누수고장을 일으켜 2번이나 귀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9월 16일 메이 홀라워 호는 102명을 싣고서 단독으로 플리머스 항을 출발하여 미국으로 떠났으며, 11월 19일 케이프코드만을 경유, 21일 프로빈스 타운에 입항하여 선박 수리와 보급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12월 21일 그들은 메사추세츠 연안에 도착하여 그 지역을 플리머스로 이름 지었습니다(브리태니카).
이처럼 2번이나 되돌아가는 항해를 거쳐 미 대륙에 도착한 그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그 해 첫 추수를 해서 1/3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저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잘 먹기 위해서나 멕시코 사람들 같이 금을 캐러 온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하여 이 황무지에 찾아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뼈를 이 침묵의 광야에 묻을 때 이곳에 신앙의 자유가 꽃피며 인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에 빛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에는 물질주의 세상에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는 절기입니다.
2015년 추수 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그 어느 해에 비해서 감회가 큼니다. 경제공황이라 할 만큼 세계의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와 함께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주가도 곤두박질치는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감사절기에 하박국의 감사와 기도가 떠오릅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바벨론 침입 압력으로 이스라엘의 온 땅은 온통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양식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심어 놓은 식물하며 모두가 철저히 유린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서 소떼들이 달아납니다.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그때 선지자 하박국이 "그렇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뼈아픈 마음이었겠습니까?